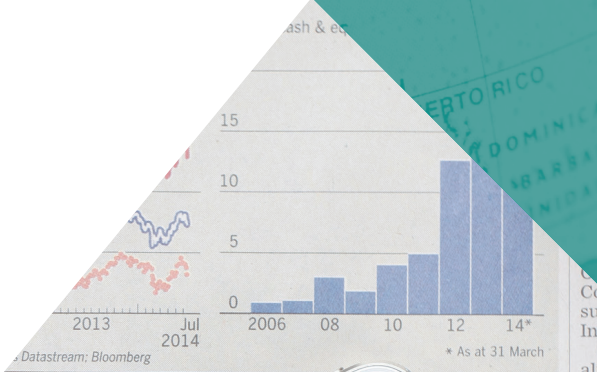


Dec  
2018

#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t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r  
...17 times). About \$14bn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ion is not the biggest  
...JP Morgan estim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  
...best  
...s an owner and c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



Dec  
2018

##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금리

## 11월 동향 연준의장이 전월 중립금리 언급을 반복한 가운데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 지속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월 초, 미 중간선거 결과의 시장 예상 부합 속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지속이 국고채 금리 하락세 견인

- 11월 초반, 미 중간선거 결과의 시장 예상 부합과 FOMC의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영향력 제한 속에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국고채 금리 하락을 견인
  - 월 초 무역갈등 우려 완화, 국내 수출 및 물가지표의 호조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견인하며 출발
  - 이어 미 중간선거의 시장예상 부합 및 11월 FOMC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추세로 전환

중반, 연준의장의 전월 중립금리 발언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스탠스에 금리 하락 강화

- 11월 중반,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입장 전환 및 국내 성장 전망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하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세 지속
  - 11월 중반, 국고채 금리가 제한적 하락을 이어간 가운데 연준의장의 중립금리에 대한 비둘기적 스탠스 전환시점에 재차 국고채금리 하락세 강화
  - 여기에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의 국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도 금리하락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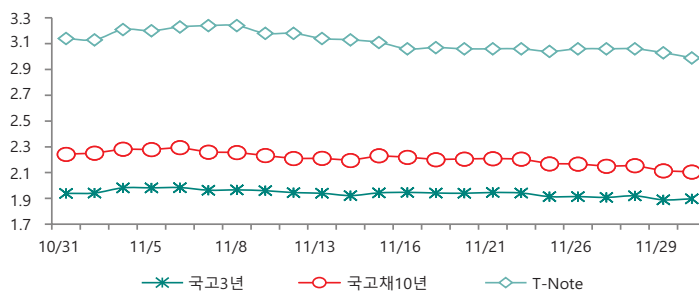
11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게 제한되며 1.9%대 초반 흐름 지속

- 11월 후반,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도 시장 선반영 영향으로 크게 상승력이 완화되었으나,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이 월말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요인으로 작용
  - 11월 후반, 금통위에서 국내경제의 불확실성 상존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금리인상 결정이 시장에 선반영된 영향으로 상승력은 제한되는 모습
  - 그러나 월말 G20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마감

### 11월 평균

국고채( 3년): 1.94%  
 국고채(10년): 2.21%  
 T-Note(10년): 3.12%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12월 전망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속에 점증하는 국내 경기 성장세 둔화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2018. 4Q <sup>F</sup>
국고채(3년, %)	2.24	2.21	1.95	1.97

- 미국 경기의 견조한 확장 기조에도 성장 모멘텀 소폭 둔화 양상 및 연준의장의 중립금리 근접 발언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기 확장세 지속에도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0.2%p~0.4%p 하향 조정되는 등 성장 모멘텀 둔화 예상
  - 이러한 가운데 연준의장의 미 중립금리 근접 언급 등으로 12월 FOMC 금리인상 이후 비둘기적 경로로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확대된 점이 국내외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11월 금통위 금리인상이 시장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 불확실성에 시장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 전망이 금리상승 여력을 제한할 전망
  - 국내 3분기 성장률(잠정치, QoQ)이 0.6%로 전분기에 이어 0%대를 유지한 가운데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지표도 하향 조정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의 금리인상이 향후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며 단기에서보다 장기 구간 국고채 금리 하락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12월 국고채 금리는 초반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및 확대되는 국내 경기 모멘텀 약화, 미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소폭 하락 예상
  - 국고채 금리는 월 초반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국내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급상 국고채 매수 우위 예상에 소폭 하락 전망
  - 여기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관련 시장 선반영 속에 향후 통화정책 경로의 완화적 시그널 예상으로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미국 경기 확장세의 소폭 둔화 가능성 속에 연준의 12월 이후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전망

국내 경제의 3분기 성장률 0%대 지속 및 성장 전망 하향 등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12월 국고채(3년) 금리는 1.87%~2.00%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연준의 12월 추가 금리인상	· 향후 미국 경기를 고려한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변화 가능성 · 한은 금리인상 결정 이후로 확대되는 국내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 달러/원 환율

**11월 동향** 11월 중반까지 11월 FOMC의 매파적 스탠스에 1,130원대 이어졌으나, 중반 이후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전환, 한은 금리인상, 미-중 정상회담 기대 등으로 1,120원대 초반까지 하락

11월 초,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및 미 중간선거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FOMC의 매파적 스탠스가 달러 강세 견인 양상

월말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달러 약세 전환하며 1,120원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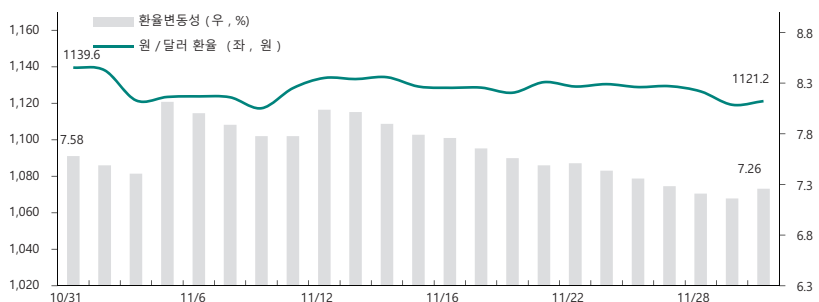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전환 영향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강하게 견인

1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7.6원

11월말 달러/원 환율 : 1,121.2원

- 11월 초,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상승 속에 하락 출발 후, 11월 FOMC의 매파적 스탠스로 상승 전환
  - 11월 초,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영향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으로 달러/원 환율은 하락 출발
  - 이후 미 중간선거 결과가 시장예상에 부합하며 위험선호 지속하였으나, 11월 FOMC의 매파적 스탠스 공개 이후 달러 강세 전환하며 달러/원 환율 상승 전환
- 11월 중반, 브렉시트 이슈와 뉴욕증시 급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속에 1,130원대 이어지다, 미-중 협상 기대와 미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1,120원대 중반으로 하락
  - 11월 중반, 브렉시트 협상 난항 및 뉴욕증시 급락 등 세계금융시장 불안 속에 달러 강세 지속되며 환율은 1,130원대 흐름을 지속하는 양상
  - 그러나 이후, 미-중간 G20정상회담에서의 긍정적 협상 기대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비둘기적 연준 통화정책 기대 등으로 달러/원 환율 1,120원대 진입
- 11월 후반, 연준의장의 비둘기적 스탠스 전환의 영향 속에 미-중 정상간 무역 협상 기대감 반영 등으로 1,120원 초반까지 하락하며 마감
  - 11월 후반, 연준의장의 전월 중립금리 언급을 뒤집는 발언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하게 약세 전환
  - 여기에 11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 영향과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달러 약세 다소 심화하며 환율은 전월보다 18.4원 하락한 1,121.2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12월 전망 월 초 불확실성 완화에 12월 연준 금리인상 시점 상승 전환이 예상되나, 이후 연말 수급 우위 영향으로 하락하며 1,120원 전후 등락을 보일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2018. 4Q <sup>F</sup>
달러/원 환율(원)	1,072.3	1,079.9	1,120.2	1,125

- 미-중 정상간 무역분쟁이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위험선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 협상여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
  - 미-중 정상간 협상이 시장 기대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약세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러한 무역협상 결과가 현재 유보적 상황에서 향후 최종 협상에 도달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이 12월 이후로도 여전히 시장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12월 FOMC의 금리인상은 여전히 달러 강세 요인이거나, 최근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로 이전만큼의 환율 상승 영향력은 제한될 전망
  - 12월 FOMC 금리결정은 연준의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전망이나 최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로의 선회 전망이 이러한 달러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은 여전히 일부 신흥국들에 대한 통화가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 경기 회복 부진 영향 속에 경제에 대한 외국인 신인도 약화 등 원화 약세 요인 속 연말 수출 달러 매도 확대가 원화 강세를 지지함에 따라 1,110~1,130원 범위 내 환율 등락이 예상됨
  - 일부 달러 약세 가능성에도 주요 기관 내년도 국내 성장률 하향 등 경기 회복 부진 영향이 외국인 투자자 신인도 약화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하단을 크게 낮추지는 못할 전망
  - 다만, 수급상 여전히 견조한 달러 공급이 연말까지 이어져 원화 강세를 지지함에 따라 1,110~1,130원 범위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것으로 예상

미-중 정상간 무역분쟁의 잠정 중단 결정이 시장 불확실성의 완화 요인으로 보이긴 하나 이후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배제 못하는 상황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금리인상은 여전히 달러 강세를 견인하겠으나, 그 강도는 파월의장 발언으로 제한될 전망

12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0원~1,130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 12월 금리인상</li> <li>· 신흥국 자본 유출 지속 가능성</li> <li>· 점차 낮아지는 국내 성장률 하향에 따른 대외 신인도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무역분쟁의 잠정적 중단에 따른 무역분쟁 리스크 감소</li> <li>· 연말 수출 관련 달러 매도 확대</li> </ul>

# 엔/원 환율

**11월 동향** 미 중간선거 전후 약세 시현한 엔화는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유지 전망이 신흥국 불안으로 이어지며 강세 전환.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가능성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엔화 약세 견인

엔/원 환율 전월대비 16.2원 하락한 987.5원에 마감

- 미국의 중간선거 및 연준 스탠스,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엔/원 환율 변동
  - 월 초,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및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에 따른 트럼프노믹스 제약 가능성에 위험선호 강화되며 엔/원 환율 하락
  - 그러나 11월 FOMC에서의 매파적 통화정책 유지 의사 재확인, 유럽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 영향이 엔/원 환율 상승 견인
  - 월 후반 금통위 금리인상 전망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시사 발언에 안전자산 선호 둔화되며 엔/원 환율 하락 전환.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또한 하락요인으로 작용

**12월 전망** 연준의 비둘기적 통화정책 시사 속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달러/엔의 제한적 하락 전망. 엔/원 환율도 신흥국 통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예상

달러/엔 제한적 하락 전망

- 달러/엔 환율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선회 가능성에 하락이 예상되나 그에 따른 신흥국 통화 불안 완화가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 12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및 2019년 점도표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 연준의 비둘기적 통화정책 선회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 예상. 이에 달러/엔 환율 하락 전망
  - 그러나 신흥국 자본 유출 우려가 완화됨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향이 달러/엔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엔/원 하락 우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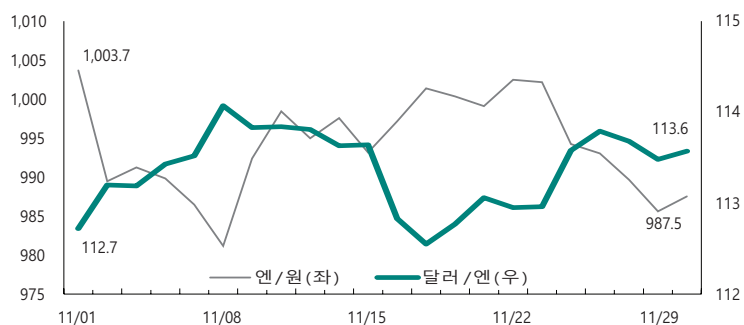
- 엔/원 환율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향으로 하락 전망
  -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강세 영향이 엔/원 환율 하락 견인 전망. 미-중 무역분쟁 잠정중단에 따른 위안화 약세 둔화 또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예상
  - 다만, 한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1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3.4엔

11월 엔/원 평균환율 : 994.1원

12월 엔/원 예상 범위 : 970원~1,00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11월 동향** 獨 정치불안, 伊 예산안 문제,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이 유로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시사가 유로/달러 상승 견인. 그러나 유로/원은 신흥국 통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 유럽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유로화 변동 속 연준의 비둘기적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 11월 한국 금리인상이 유로/원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월 초, 독일 메르켈 총리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이탈리아 예산 수정안 제출 기한 도래, 브렉시트 협상 차질 등이 유로/원 하락 견인
  - 월 중반, 브렉시트 초안 합의 보도와 이탈리아 총리의 내년 예산안 관련 수정 여지 시사에 유로/원 환율 상승전환
  - 월 후반, 브렉시트 협상안의 영국 의회승인 무산 가능성과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시사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강세 영향, 한국 금리인상 등에 유로/원 환율 하락 시현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15.3원 하락한 1,275.8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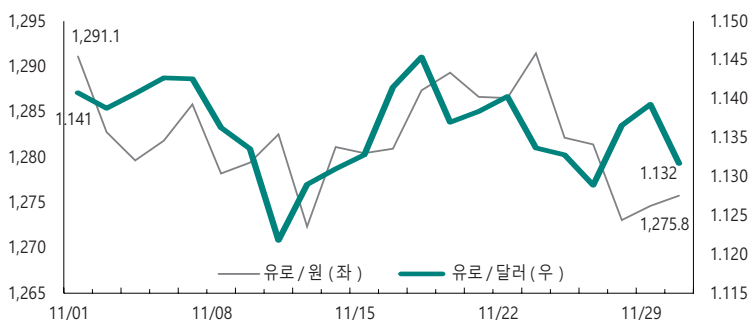
**12월 전망** 유로/달러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 伊 재정 문제 해결 가능성 및 ECB의 QE 종료 영향으로 상승 전망. 유로/원은 월 초 원화 강세 영향으로 큰 폭 하락 후 ECB QE 종료에 주목하며 상승전환 예상

-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으로 유로/달러 상승 전망
  -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전망 우세 속 ECB의 연말 QE 종료, 이탈리아 예산안 축소 가능성 등이 유로/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승인 무산 가능성 등 브렉시트 협상 차질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은 월말로 가면서 신흥국 통화 강세 진정과 ECB 긴축 영향으로 상승전환 예상
  - 유로/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통화 강세 영향이 원화 강세를 더욱 강화시킴에 따라 유로/원 환율 하방압력이 높아 보임
  - 다만, 월말 ECB QE 종료와 한국 경기둔화가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유로/달러 환율의 제한적 상승 예상

유로/원 환율 하락 후 상승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6달러

1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82.0원

12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50원~1,29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2/4	3/4	9월	10월	11월
전 산업 생산	2.3	1.2 [0.8]	-0.7 [0.2]	-4.8 [-1.2]	-6.7 [0.4]	
제조업	1.6	0.5 [3.0]	-2.2 [0.4]	-8.9 [-2.1]	11.1 [0.8]	
서비스업 생산	1.9	2.3 [0.2]	0.8 [0.2]	-1.5 [0.1]	5.4 [0.3]	
소매판매액	1.9	4.7	3.8	0.4	5.0	
설비투자	14.1	-5.9	-13.6	-19.1	9.4	
건건설기성액	10.1	-3.4	-9.8	-16.6	-3.5	
경기선행지수	-	-	-	99.2	99.8	
실업률 (%)	3.7	3.9	3.8	3.6	3.5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0 [-0.2]	2.0 [-0.7]	
경상수지 (억달러)	-	-	-	108,314		
상품수지 (억달러)	-	-	-	132,440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8.2	22.7	4.5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6	27.9	11.4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	-	1,949	2,008	1,938
KOSPI (월말)	-	-	-	2,343.1	2,014.7	2,096.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6	2018.7	2018.8	2018.9	2018.10	2018.11
미국 USD	1,114.6	1,118.7	1,112.9	1,109.3	1,139.9	1,120.8
일본 JPY(100)	1,007.0	997.6	1,003.3	976.0	1,010.2	987.5
유로 EUR	1,297.3	1,308.6	1,300.4	1,291.3	1,291.1	1,275.9
영국 GBP	1,472.7	1,461.1	1,445.4	1,446.8	1,458.2	1,428.6
중국 CNH	167.8	164.2	162.7	161.1	163.4	161.5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8.12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BOE 통화정책회의		1 한 11월 무역수지(\$6,552M) -수출/수입(22.7%/27.9%, YoY) G20 정상회의(11/30)
2	3	4 豪 RBA	5	6	7	8
	중 11월 Caixin 제조업 PMI(50.1) 유 11월 Markit 제조업 PMI[F](51.5) 독 11월 Markit 제조업 PMI[F](53.3) 미 11월 Markit 제조업 PMI(55.4) 11월 ISM 제조업지수(57.7) 11월 ISM 건설지출(0.0%MoM)  Fed's Kaplan Speaks at Community Forum in Laredo, Texas	한 11월 CPI (-0.2% MoM/1.1% YoY) 호 RBA 기준금리(1.50%) 유 10월 유로존 PPI (0.5% MoM, 4.5%YoY)	한 11월 외환보유고(\$402.7B) 중 11월 Caixin 서비스/종합 PMI(50.8/50.5) 유 11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3.1/52.4) 독 11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3.3/52.2)  Fed's Powell to Testify Before Joint Economic Committee 연준 Beige Book	한 10월 경상수지(\$402.7B) 호 10월 소매판매(0.2%, MoM) 독 9월 공장수주(0.3%, MoM) 독 10월 무역수지(-\$640B)  Fed's Bostic Speaks on the U.S. Economic Outlook  OPEC 정기총회(~7)	중 11월 외환보유(\$3,053.1B) 미 11월 고용통계 -실업률(3.7%) -비농업부문고용자수변동(50K) -시간당평균임금(0.2%, MoM)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0,923B)	중 11월 무역지수(\$34,01B) -수출/수입 (15.6%/21.4% YoY)
9	10	11	12	13 ECB 통화정책회의	14	15
중 11월 CPI/PPI (2.5/3.3%, YoY)	일 10월 경상수지(¥1821B) 10월 핵심가계수지(-8.3% MoM)	미 11월 PPI(Core)(0.5%/0.5%, MoM) (2.9%/2.6%, YoY)	일 11월 PPI(2.9% YoY) 유 0월 유로존 산업생산 [SA](-0.3%, MoM) 미 1월 CPI(Core)(0.3%/0.2%, MoM) (2.5%/2.1%, YoY) (11월 재정수지(-\$100.5B))	유 ECD 기준금리(0.00%) 독 11월 CPI[F] 독 11월 수출/수입물가 (0.40%/0.50%, MoM)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EU정상회의 (~14)	미 10월 광공업생산 [F] 중 11월 광공업생산 (5.9% YoY) 유 12월 Markit 제조업/서비스 종합PMI[F] 독 12월 Markit 제조업/서비스 종합PMI[F] 미 11월 소매판매(0.8%, MoM) 11월 광공업생산(0.1%, MoM) 11월 12월 Markit 서비스 PMI[F]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16	17	18 美 FOMC (~19)	19 BOJ 통화정책회의(~20)	20 BOE 통화정책회의	21	22
유 11월 유로존 CPI (0.2% MoM, 2.2% YoY) 미 12월 뉴욕주제조업지수(23.3)	한 11월 금통위 위사록 공개 독 12월 IFO 기업환경지수	한 11월 무역수지(-¥449.3B) -수출/수입(8.2%/9.9%, YoY) 유 FED 기준금리(2.00~2.25%) 11월 기준주택매매 (5.22M, 1.4% MoM)  Fed's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Decision	일 11월 무역수지(-¥449.3B) -수출/수입(8.2%/9.9%, YoY) 유 FED 기준금리(2.00~2.25%) 11월 기준주택매매 (5.22M, 1.4% MoM)	일 BOJ 기준금리(-0.10%) 영 BOE 기준금리(0.75%) 미 11월경기선행지수(0.1%)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한 11월 PPI(2.2%, YoY) 일 11월 CPI(1.4%, YoY) 독 1월 GIK 소비자신뢰지수 미 3Q GDP 연전화 QoQ [SA] 3Q GDP 물가지수[SA] 3Q 개인소비[SA]	
23	24	25	26	27	28	29
	미 11월 시카고연방 국가활동 지수(0.24)		미 10월 S&P/CS 20도시 주택가격 12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14)	미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11월 광공업생산[P] 일 11월 도매재고[P]	
30	31					
	중 12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미 12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지수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안은 이전치

#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털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